

한글서체

조선로동당창건 76돐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전시회에는 전국의 창작가, 교원, 연구사, 학생, 산업미술애호가들이 창작한 각종 도안들과

실현제품, 모형 등이 전시되었다. 자재의 힘과 기술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공화국인민들의 지향과 의지가 비친 산업미술도안들중에서 그 일부를 소개한다.

소학교학생교복도안

소학교학생교복도안은 장난세찬 소년기의 특성에 맞는 색깔과 형식으로 되어있다. 녀학생여름교복은 달린옷형식으로, 남학생여름교복은 T자쓰와 반바지형식으로, 봄가을교복은 옷웃이 세타로 되어있다. 색깔은 대조를 이루는 연분홍색과 흰색, 연푸른색으로 되어있다.



초급중학교학생교복도안

초급중학교학생교복도안은 이 시기 학생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소학교학생교복에 비해 비교적 무게감있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여름교복은 옷웃은 흰색으로, 치마와 바지는 진한 자주색과 곤청색으로 대조가 뚜렷하게 되어있다. 봄가을교복은 자주색과 곤청색으로 되어있다.

고급중학교학생교복도안

고급중학교학생교복도안은 젊음이 넘쳐나는 이 시기 학생들의 특성을 색과 형식으로 잘 살리었다. 도안은 남녀옷이 제각기형식으로 되어있어 사회에 진출하여 희망과 포부를 펼쳐가려는 고급중학교학생들의 열망을 보여준다.

(2)



대학생교복도안

대학생교복도안은 청년대학생들의 열정넘친 모습이 잘 나타나게 고상하면서도 절제된 색과 형식으로 되어있다. 특징적인것은 녀학생교복에 장식리본이 있어 세련된 느낌을 주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철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 다섯차례나 세계신기록을 세운 리성희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가운데는 처녀힘장사로 명성을 떨친 리기선수 리성희도 있다. 1999년 11월 그리스에서 진행된 제13차 세계녀자력기선수권대회 58kg급경기에 출전한 그는 추켜올리기에서 기본특기인 빠른 순간체기와

앞아받기, 강한 추기로 131kg을 들어올림으로써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당시 언론들은 리성희를 《처녀힘장사》라고 보도하였다. 2000년 5월에 진행된 제13차 아시아녀자력기선수권대회 58kg급경기에서도 그는 추켜올리기에서 한번들기

로 이전에 자기가 세웠던 세계기록을 갱신하고 종합1등을 쟁취하였다. 2002년 10월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력기 53kg급경기에 출전한 그는 끌어올리기에서 종전 세계기록보다 2.5kg 더 많은 102.5kg을 들어올려 이 종목에서 또 다시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이 추켜올리기에서 최고 무게인 122.5kg을 들어올렸다. 언론들은 《기록제조기》라고 불리우는 리성희의 힘은 명성그대였다. 《102.5kg 짜리가 리성희의 머리에 올려지는 순간 세상은 그의 발 밑에 놓였다》고 경탄하면서 경기 전 과정을 상세히 전하였다. 제15차 세계녀자력기선수권대회는 말그대로 치열한 대결장이었다. 승리의 신심을 안고 경기장에 나선 리성희선수수는 끌어올리기에서 재치있는 순간체기로 두번째 순위에 있는 선수보다 2.5kg이나 더 많이 들어올렸으며 추켜올리기에서 강한 추기로 127.5kg을 성공시킴으로써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다섯차례나 세계신기록을 세운 그에게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인민체육인칭호가 수여되었다. 본사기자

실효성이 큰 수학학습지원프로그램 《날개》

공화국의 교육도서출판사와 창명정보기술교류사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수학학습지원프로그램 《날개》(소학교 1학년~5학년)가 인기를 모으고있다. 수학학습지원프로그램 《날개》는 소학교학생들이 배운 내용들을 원리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제작된 과외학습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실과 시험장, 성적표, 수수께끼 및 유모아편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습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법으로 문제를 풀수 있도록 매 문제에 풀이방향과

답을 주고 미처 이해하지 못한 문제에 한해서는 답에서 풀이과정을 알려준다. 그리고 매 문제에 따르는 점수평가를 자체로 받을수 있어 혼자자도 모든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수 있게 되어있다. 한편 시험장에서는 학생들이 해당한 장에 따르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게 하여 자기의 학습정형에 대한 즉시적인 평가를 받을수 있다. 성적표에서는 도표와 날개자에 따르는 성적표를 게시하여 학생들이 자기 실력이 높아진 정도를 스스로 알게 함으로써 그들의 학습열의를

높여준다. 평천구역 봉학소학교의 한 교원은 많은 학생들이 《날개》프로그램을 리용하고있다고 하면서 수학문제풀이에 심취되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편리한 대면부, 실력을 평가하는 점수의 정확성도 마음에 들지만 그보다 학년별교육과정에 따라 해당한 장을 선택하여 복습할수 있게 만든 것이 좋다고 하였다. 한 학부모는 이 프로그램이 문제를 풀 때마다 점수를 매기며 틀린 점

까지 대주니 마치 학습방조를 해주는 선생님들 모셔온 느낌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수학학습지원프로그램 《날개》는 소학교학생들을 높은 수학적지능의 소유자들로 키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있다. 본사기자



그루는 남쪽으로 20m 떨어졌다. 평균높이는 15m, 제일 큰 나무의 뿌리목둘레는 3.64m, 가슴높이둘레는 2.85m이며 제일 작은 나무는 뿌리목둘레가 2.5m, 가슴높이둘레가 1.8m이다. 세그루의 소나무는 버섯모양을 이루고있다. 입문소나무는 1980년 2월 천연기념물 제183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있다.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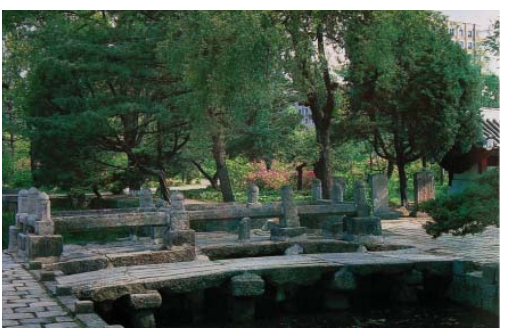


천연기념물

입문소나무는 황해북도 곡산군 동산리에 있는 천연기념물이다. 소나무가 동산리 정계동입구에 있다고 하여 입문소나무라고 한다. 입문소나무는 1690년경부터 저절로 자란것으로서 마을사람들의 휴식터로 리용되고있다. 입문소나무는 모두 다섯그루인데 세그루는 3m간격으로 남북방향으로 서있으며 한그루는 북쪽으로 5m 떨어져 서있고 또 다른 한

선죽교

선죽교는 개성시 선죽동의 로계천에 놓여있는 고려시기의 돌다리이다. 선죽교는 길이 8.35m, 너비 3.36m로서 크지 않지만 고려말기의 봉건관료이며 유학자인 정몽주 리성제일과에 의하여 여기에서 피살된(1392년)것으로 하여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정몽주가 피살된 후 그가 죽은 자리에서 참대가 돌아났다고 하여 다리이름도 선죽교라고 고쳐불렀다. 다리는 개울바닥에 기초를 다진 다음 네줄의 기둥들을 세워 경간을 설치하고 그우에 화강석장대돌들을 깔았다.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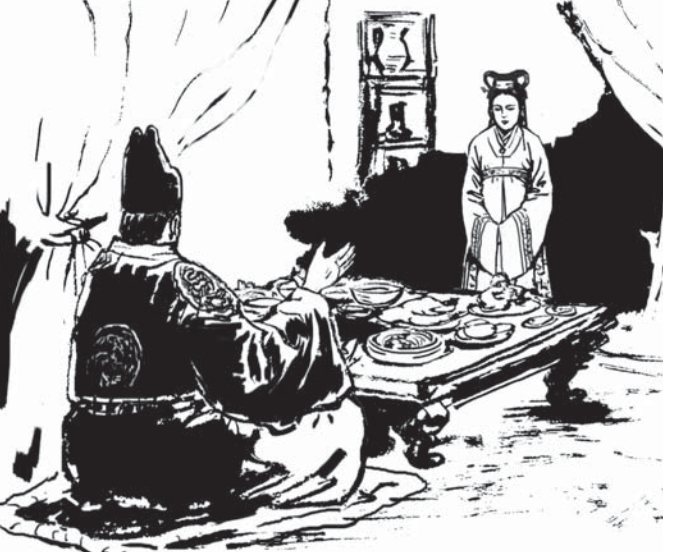


보쌈김치 (4)

그림 김윤일

대강의 행차가 떠나간 후 고분이는 웬 일인지 마음이 불안하였다. 어수선한 흥동가을집에 매여살아도 부엌 깊숙이 박혀있으니 그 누구도 시끄럽게 굴지 않아서 좋았는데 대강에서 큰 판리가 나와 살피고 갔으니 이제 무슨 불집이 터질지 알수 없는것이였다. 아니나 다를까 설을 며칠 앞둔 어느날, 한양대강집에서 우악스러운 하인배들이 빈 가마 한틀을 메고 돌게 바람을 일으켜 들이닥치더니 《대강님부부》라고 하면서 주인평가를 꼼짝 못하게 옥박질러놓고 광방에서 아직 헤치 않은 새 김치독 한개와 고분이를 처신고 한양으로 달아났다. 설날 아침 경복궁 어느 한편전(왕이 평상시 거처하는 전각)에서 임금의 수라상을 받았다. 전례대로 하는 설날 궁중의식을 끝낸 후 비빈들과 왕자, 공주 등 왕실안팎이 모

두 세배를 올리고 물러간 뒤 산해진미로 가득찬 수라상을 마주하고있는 임금은 옥돌을 풍들여 다듬은 귀얄이용배기에 낫선 음식이 담겨있는것을 보았다. 《이것은 무엇이나?》 임금이 묻자 수라상을 맡은 궁녀가 제바르게 대답하였다. 《그것은 보쌈김치라 이르는것이오네 내자시(궁궐에서 쓰는 식료품관리와 연회등을 맡은 관직) 최대강께서 보쌈김치를 세간으로 진상한 덕분에 임금의 환심을 산 최대강은 그후 벼슬이 한글훈쪽 올라갔다. 그러자 왕궁관리들과 내시, 궁녀들까지 수군수군, 키득키득하니 어느새 최대강에게 《보쌈김치대강》이라는 별명이 붙여버렸다. 최대강이 《보쌈김치대강》이 되든말든 그것은 별로 이를만한 일이 못되지만 보쌈김치가 임금에게 알려져 임금이 관심하는 식찬이 된것



차비란 왕궁안에서 밭짓고 물고고 솟는 일 등은 갖 잡일을 맡은 하인인데 대전(왕이 거처하는 궁전), 왕비전, 세자궁에 각각 100여명씩 도합 300여명이나 있었다. 고분이는 대전에서 김치

말은 차비가 되어 사철 왕의 수라상에 오를 김치는 물론 각종 궁중연회와 제사상에 놓을 보쌈김치를 만들었다. 보쌈김치는 이때를 당하여 맛이나 모양에서 최상의 경지에 이르러 가는 곳마다, 맛본 사람마다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음식으로 한때는 보쌈김치를 잘 담그어 마을사람들의 칭찬과 보살핌속에서 살았다는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봉양하느라 시집도 안가고 한생을 바친 효녀라는것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강에게 들어가 궁녀가 되어 먹을 걱정, 일을 걱정없이 산다고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고분이는 나서자란 월교리마을의 마음씨고운 이웃들이 그리웠다. 산골마을집에서 술가리를 해다 팔면서 제몫 살던 그때가 그리웠다. 이슬머금은 첫물산딸기며 까맣게 익은 머루며 다래, 익은 들배를 따서 어머니손에 살거니 취해주면서 모녀가 뜨거운 정을 주고받으면서 살던 그때가 그리웠다. 최대강네 행랑방에 홀로 두은 어머니가 매일같이 걱정되었으나 나가볼수도 없었었다. 왕궁에 들어온지도 1년 세월이 지나간 어느날이였다. 어머니가 끝내 최대강집 행랑방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 왔다. 그제야 며칠간 맘미를 주어 왕궁밖으로 나가보게 하였다.

겨울철에 발을 덥게 건사하려면

겨울철에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 사람들은 발이 찬감을 느끼게 된다.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 발을 덥게 건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양말과 신발을 잘 선택해야 한다.
- 발이 젖었다면 제때에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특히 발가락사이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 발을 덥힌다고 하면서 방열기나 화로 등 지나치게 뜨거운 열원천에 가까이 가거나 지나치게 말아야 한다.
- 목마른감이 없다고 하여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 발이 젖었다면 제때에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특히 발가락사이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 발을 덥힌다고 하면서 방열기나 화로 등 지나치게 뜨거운 열원천에 가까이 가거나 지나치게 말아야 한다.

속담과 뜻

- ◆ 꽃이 말하지 않아도 나비는 절로 온다. 꽃은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내뿜는 향기를 좇아 나비들이 날아든다는 뜻으로서 사람은 시련속에서 단련되고 더욱 힘있는 존재로 뒀을 비겨 이르는 말.
- ◆ 사항노루 지나는데 절로 향기난다. 훌륭한 사람의 행적은 다 훌륭하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 아름다운 옥은 갈수록 빛나고 보배칼은 불릴수록 리하다. 아름다운 옥도 자꾸 갈면 갈수록 윤기가 나고 빛이 더해가며 보검은 불릴수록 날카로워진다는 뜻으로서 사람은 시련속에서 단련되고 더욱 힘있는 존재로 뒀을 비겨 이르는 말.

웃모, 해는 언제나 둥근데

어느 겨울날 하루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사람들이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동지가 지나더니 해가 길어지는게 하루가 다르게 알리누만.》 《글쎄요. 해가 길어지긴 길어졌수다. 우리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도록 날이 어두워지진 않은걸 보나...》 이 말을 들은 명수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내 눈에는 해가 언제나 둥글게 보이는데 어른들은 왜 길어졌다고 하나요?》